

<b>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b>	회차	9차
	일자	2021.02.08
	장소	ZOOM 화상회의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X	○	○	10

##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획 간호대학 학생회 보궐선거 준비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신입생 대상 가이드북 제작. 유튜브 및 SNS 활용한 단과대 소개. 신입생 환영 영상 제작 계획.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진행 계획. 단과대 내 지원자들과 학생회. 단운위가 함께 행사 계획 및 진행 예정.
사회과학대학	학과(부) 신입생 환영회와 별개로 단과대 신입생 환영회 준비 중이며 기획단 모집 중. 학과(부) 신입생 환영회 내 인권교육이 진행 위한 자료 제작 중.
약학대학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OT) 계획 수립중이며 차후 교학지원팀과 미팅 예정. 2.27(토) OT 진행
예술대학	3월 5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기획 중
의과대학	-
인문대학	새내기 자료집 제작 중. 새내기 맞이 주간 사업 확정 후 실무 중. 다음 주 전공개방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 진행 예정. 학과별 노후화 시설 점검 후 교체.
자연과학대학	신입생주체 선발 완료. 신입생 가이드북 제작 예정
통일공대	미디어국 어도비 계정 학생회비 지원 의결하여 가결 공학도서관 내 책상 1/3, 의자 2/3 교체 예정. 2/15일 계산기 공동구매 업체 미팅 예정.
동아리연합회	-

## 2. 보고 안건

### 1. 총학생회장단 보고

등록금 환불 관련 자료요청 및 회신 대기

‘인문대학 페미니즘 동아리 바리’ 측 회장단 대상 질의서 답변 송부 (2월 5일)

총: 정보보고에 대해서는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다.

부총: 저희가 아직 총학생회 차원에서 행정부처 간담회와 등록금 환불 협의체에 대한 결과보고가 나가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보고를 내는데 오늘 집부와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간담회와 등환협 회의 보고와 동일한 형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 데 간담회 보고에서는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질문답변 외에 당시 학교 측에서 간담회 요청 관련 회신과 자료 송부 등이 늦었다는 사실을 보고를 통해 밝히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등록금 환불 협의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와 학생 측이 상호 논의되고 있는 양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를 하기로 했다. 이 말씀은 7.8억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밝힌다는 이야기이다.

총: 질의사항 있으신지?

인문.정: 질의가 있는데 그때 총학생회장님이 카톡방에서 올려주신 걸 보면 비공개 사안이라고 그때 나와 있어서 이게 비공개가 지금 어떻게 공개로 바뀐 건지?

총: 현재 저희가 관련 정보 보고를 위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즉시 단과대 회장님들도 단운위내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답변이 되셨는지?

인문.정: 네 감사하다. 그러면 지금 총학생회에서 발행하려는 것에 뭐 7.8억에 대한 내용, 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납부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언제쯤 게시가 될 수 있는지? 바쁘실 것 같아서...

총: 예정은 내일이나 저희도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차후 수요일까지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내일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문.정: 네 혹시 만드시면 단과대 차원에서도 단과대 차원에서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총: 네 알겠다.

##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집행위원회	교양과목 강의계획서 신고 종합 중
	중대중심 회원가입/로그인 오류 관련 가이드라인(FAQ) 공지 완료 중대중심 리뉴얼 관련 업체 미팅 진행 중
	홍보소통국 리크루팅 진행 및 관련 공지 완료
산하위원회	졸업기념품 및 졸업앨범 관련 우편배송 신청자 종합 및 배부 관련 공지 완료
	졸업생 학위복 대여 신청자 종합 중
	창업, 취업 관련 수요조사 진행 중 평등 가이드라인 제작 중

총: 등록금 환불 협의체 3차 회의 일정 같은 부분은 제가 예산팀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봤다. 오피셜은 우선 이번 주에 진행하는 것은 양측 다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설 연휴가 끝이 난 후에 3차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 자세한 일정 관련된 내용 전달받으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 3. 논의 안건

#### 1. 단위별 오리엔테이션 진행

단위별 21학번 대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상황 공유

연내 대면 오리엔테이션 진행 논의 : 가능성 판단, 예산지원 관련 등

20, 21학번 지원예산 관련 논의

총: 논의안건이다. 단위별 오리엔테이션 진행인데 금차 회의에서 신입생 OT 방식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단위별로 OT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서로 상호간에 공유를 하고 전반적으로 신입생 OT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OT 현재 준비하시고 있는 단위계시면 공유해주시면 다른 단과대 회장님들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간호대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호대가 제일 처음으로 OT 준비하고 있다고 하셔서...

간호.비: 우선적으로 저희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면으로 OT를 진행을 한번 한 바 있다. 여름방학에 1학기 종강을 하고 나서 여름방학 되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을 했고 전부 학교로 불러서 강의실 쪼개서 강의실에 넣고 시간별로 쪼개서 넣었고 그리고 중앙제어실 개념으로 강의실 하나에서 zoom 모두 연동해서 각 강의실마다 지도교수님들 분반별로 넣어주고 진행 staff로 학생회 인원 넣고 이렇게 진행했었다. 원래 입학식 후에 교학지원팀 차원에서 OT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저희 단위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단위도 그런 걸로 알고 있다. 근데 그때 못했고 그러니까 새내기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못해서 작년 해당 OT에서는 교학지원팀 OT와 과 학생회 OT 간략하게 진행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방법 채택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불러서 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이고 설 연휴 끝나고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보면서 또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학지원 팀장님하고 학생주임 교수님, 학과장님과 논의가 어느정도 되었고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 주 중에 아니 금주 중에 한번 이뤄지고 다음주부터는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근데 이거 하면서 알아보니까 예산팀에 문의를 하였는데 중운위에서 새내기 배움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예전에 신입생 OT 비용을 예년과 같은 2박3일과 같은 형태로 가게 될 경우에는 같은 비용을 주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든지 어쨌든 다른 형태로 진행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좀 감가절하된 그런 비용을 준다고 인하된 비용을 주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까진 중운위에서 들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을 그 새터 비용을 올해와 똑같이 작년도에 묶어서 저희가 쓰게끔 하겠다 여름에 쓸 거면 써라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셔서 그 비용을 쓰려고 했었는데 못썼다 결국에는. 중운위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예산팀에서 돈을 풀어서 단과대로 가져가고 그 단과대에서 집행하게끔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못했어서 올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냐 확실하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싶었다 중운위에서. 근데 알아보니까 저희 교학지원 팀장님이 예산지원 팀장님한테 여쭙았는데 2,3월안에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100% 없고 여름에 가게 되면 아마 새터처럼 2박 3일로 될 경우에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때 2박3일로 못가면 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예년처럼 그래서 그러면 그 새터비용, OT비용은 거의 못 쓸 것 같다 지원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하셨다. 그럴 바에는 그럼 어차피 새터도 못갈 것 같고 돈도 지원을 못 받을 거라면 미리 해야겠다고 해서 간호대학은 지금 준비 중인 것이다.

총: 우선 제가 오늘 예산팀 방문해서 새터 관련해서 논의 진행한 바 있다. 우선 21학번 신입생 OT비용 그리고 20학번 신입생 OT비용은 모두 2021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지 않다. 저희가 만약에 여름 방학 때 대면형

태의 OT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비대면 형식으로 OT를 진행하게 된다면 추경의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보존해주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다. 다만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각 단과대학별로 지원 금액이 상이하면 학교본부측도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 해주셨고 아마 중운위끼리 논의를 해서 통일성 있는 기획안을 가져오면 3만원이든 5만원이든 지원을 무조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간호.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학식 관련된 안내가 아무데도 안나와있고 단과대학 차원에서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 때문에 저희 간호대학은 학장님 의견인데 단과대랑 별도로 간호대학 자체에서 입학식 진행하려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입학식하고 아까 말씀드린 OT 해서 한 번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OT같은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인 2월말에 진행 할 예정이다.

총: 입학식 관련해서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알아보겠다. 다른 단과대 뭐 준비하시고 있는 현황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경경.정: 경경대는 지금 신입생OT같은 경우에는 단운위내에서 단운위 각각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금 각 학과/부에서 준비 중에 있고 단과대 차원에서는 지금 계속 교학지원팀 이랑 관련해서 따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현재 구체화된 사안은 없어서 조금 더 논의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입생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신입생 가이드북 및 유튜브 내에 공개될 동영상 준비하고 있다.

사범.정: 네 사범대도 공유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신입생들 대상으로 일단 가이드북 제작하여 공지를 해서 정보전달을 할 계획이다. 별도로 ZOOM이나 유튜브 개설하여서 그런 SNS 활용하여서 신입생 학우분들한테 대면으로 볼 수 없었던 사범대 학생회 소개나 건물 이동경로 소개 등 정보전달 할 계획이 있고 저희 단과대 내에서 각 과별로 이제 과별OT를 진행을 하고 지원하고 사범대 학생회에서는 따로 신입생 환영 행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 있어서 사범대 학생회 외에 사범대 내의 학우들의 지원을 받은 상태이다.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

인문.정: 저 소소한 질문 하나 해도 되는지?

총: 네

인문.정: OT랑 새터랑 다 다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총: OT 내에 새터 방법이 존재한다.

인문.정: 감사하다.

부총: 굳이 OT라고 적은건 20학년도 이번 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입생 새터나 OT로 일단 못 적을 것 같다. 지금 새맞이 사업이나 다른 형태의 새내기맞이 사업을 준비하는 단위도 있기 때문에 일단 OT로 통용해서 적었다.

총: 네 OT를 진행하는 데에도 갖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통용어를 사용했다.

인문.정: 감사하다. 저는 순간 OT도 있고 새터도 있는 것 같아서 둘 다 준비해야하는지...

총: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신입생 OT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학교 측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진행할 계획이신지 다들?

인문.정: 저희는 일단 학생회비로 할 예정이다. 저희는 만약에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그건 어차피 여름에 갈 새터를 그때 말씀해주셔서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일단 각 학과 학생회비와 단대 학생회비에서 하고 있고 막 그렇게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서 준비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그래서 각 학생회비에서 처리하고 있다.

총: 우선 제 개인적인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번 여름방학 때 대면 형태의 OT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학교 OT 예산을 현재 사용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어느 단과대는 3월에 OT를 진행을 하고 어느 단과대는 또 여름방학 때 대면으로 OT를 진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

간호.비: 지금 말씀하신 게 2월말에서 3월초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준비 하고 있는 게. 근데 예산이 3월부터 회기가 도니까 2월말부터 줄려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마 지원이 힘들 것이다.

총: 바로 집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추경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비: 맞다.

총: 행정절차상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새터를 주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방학 때 대면 OT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최대한 학교돈은 보존을 해놔다가 여름방학 때 갈 수 있으면 가고 안가면 또 다른 형태의 OT를 또 진행 하면 된다.

간호.비: 그래서 저희 단위 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드는 건 아닌데 우선적으로 OT비용 자체는 아예 건들일 생각을 안 하고 뭐 못 받으면 그건 그거대로 베풀이고 받을 수 있으면 나중에 한 번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학생지원비로 나오는 돈, 단과대학 학생회로 나오는 학생지원비 건드릴 예정이다.

통공.정: 공대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학생회장단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새내기 환영단이라고 해서 각 과별 20학년 친구들 위주로 주체단을 형성해서 새내기 대상 행사를 맡고 있고 기본적인 틀은 단위별로 영상 2개씩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로 했고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그게 또 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과마다 사정에 맞게 알아서 진행을 하되 저희 공대 학생회가 간담회 중간에 들어가서 일말의 설명정도 해주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어떠한 상품이나 그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교학지원팀과 논의를 해서 공대 전체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약속받은 상태이고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들을 공문으로 보내오면 구매를 해서 배부해주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이다.

사과.정: 사과대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과대에서는 학과 신입생 환영회와 별도로 사과대 신입생 환영회도 진행을 하고 사과대에서는 1월부터 저희단위 신입생 OT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선거운동본부 때부터 사용하던 사회과학대학 캐릭터가 있어서 캐릭터 굿즈 제작해서 신입생 학우분들께 송부할 예정이고 그리고 학과/부 학생회 소개영상과 신입생, 재학생 컨셉으로 안내하는 영상 사과대 차원에서 제작해서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저희 단위는 자체 가이드북은 발행하지 않고 오픈채팅방을 이용해서 1/12부터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고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저희 OT는 3/5~7에 신입생 환영회 진행할 예정이고 네차례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zoom 이용해서 진행하고 네다섯가지 정도의 게임도 진행하고 Q&A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사용하는 zoom과 온라인 프로그램 관련해서 교지팀 지원 가능할지 연락할 예정이다. 여기서

하게 새터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지원비용을 건들이지는 않을 예정이고 저희는 그 당선된 직후에 12월에 간식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당시에 기프티콘으로 하면 이제 회계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원이 필요하면 그걸 지원해주겠다고 말씀하신적이 있어서 zoom이랑 온라인 프로그램 구독하는데에 교지팀 지원 가능한지 여쭙볼 예정이다.

총: 네 감사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월에 진행되는 OT에는 학교 OT예산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약학.정: 저희는 약간 사용하도록 일단 논의를 간단하게 진행이 되었다. 일단은 저희 학생회 차원에서 행사 진행에 있어 물론 2학기때 코로나 상황에서 좋아져서 이제 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쪽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무리 맞는다 해도 여러 번 맞아야 하고 그를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면활동에 진행되는 게 저희는 내년으로 예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1학기랑 2학기는 전면 비대면으로 가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래서 일단은 OT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학장님만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서 신입생 OT전에 이제 방송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는 사과대에서 진행 하는 것처럼 이제 zoom을 통해 신입생들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교학지원팀 팀장님한테 학생지원금 그러니까 1인당 나오는 6만원에 대해서 사용가능에 대해 여쭙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장님과의 논의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금액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체복 야구잠바랑 아니면 코치자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소속감을 좀 확실하게 완성시켜줄 수 있도록 이제 진행할 계획이다.

총: 근데 제 경험상 단체복 지원은 안 해주실 것이다 아마. 작년에도 저희가 단체복 돗바 맞춰서 드리자 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반려 당했다.

약학.정: 네 알겠다.

간호.비: 간호대학도 작년에 약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돈을 날릴 바에는 과잠바라도 다 사주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예산안 짜서 보내드렸었는데 학장님은 승인 주체에 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꺼있어도 학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단과대로 돈이 떨어지면 학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애초에 단과대로 떨어져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런 상황 공유해드렸다.

총: 만약에 이번에 학교예산을 사용한 게 된다면 여름방학 때 OT를 약대만 못 가게 되는 것이다.

부총: 저희가 실제로 OT를 같지 안 같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부처에서 전체 단과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단과대는 모두 비대면으로 신입생 OT를 진행하고 3월에 추경으로 받고 있는 예산은 따로 사용을 하지 않고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 다른 의견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아마 해야 할 듯 싶다. 아무튼 그 기획하시는 코치자켓 관련된 것은 다른 단위에서 말씀드리는 의견도 조금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전용해서 사용하실 계획인건지 아니면 추경도 진행되지 않았고 하니 조금 더 논의를 해보셔서 중운위와 같이 진행 하시는 건 어떨지?

약학.정: 그러면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그러면 중운위랑 같이 일단은 합류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결정사항을 되는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총: 네 감사하다.

인문.정: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총: 네

인문.정: 약간 논외인데 프리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총: 네 프리하게

인문.정: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단과대 차원에서 과잠 공구하시는 단대가 있는지?

경경.정: 경경대 진행하고 있다.

간호.비: 저희랑 의대 약대도 그럴 것 같다. 단일과라서.

인문.정: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막 여러 업체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는지?

경경.정: 경경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부 학과가 모여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과대 차원에서 업체 컨택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괜찮은 업체들로 몇 개 추려서 품평회를 진행 한 다음에 그 품평회 내에서 각 학과 학부 회장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업체선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해당 의사가 없는 단위는 따로 빠져서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문.정: 그러면 품평회에서 하면 등 뒤에 학과, 문신이라고 하나 어쨌든 간에 그게 다 다르게 박히는지?

경경.정: 네 다르게 요청 드리면 가능하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부총: 네 그렇다고 한다.

약학.정: 네 약대 내에서는 기존부터 거래를 하던 거래처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 보장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디자인의 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생 대상으로 의견을 받은 뒤에 저희가 시안을 구성해서 투표를 받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간호.비: 간호대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집부 안에 담당하는 국장이 있고 국장이 업체 컨택을 해서 단대 집부 회의에서 업체 선정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회의를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공동구매 진행한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부총: 아무튼 인문대 차원에서도 잘 논의하셔서 과별로 다른 문신을 잘 새기시기 바란다.

인문.정: 네.

총: 문신 속기록에 담겨도 되는지?

인문.정: 바뀌주시면 안되는지?

부총: 속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도 속기로 들어간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총: 혹시 OT나 다른 추가 안건 있으신지?

간호.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OT 단대별로 다 통일해서 안을 가져오라고 예산팀에서 말한 건지?

총: 네 맞다.

간호.비: 그럼 그거 관련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총: 저희가 아직 추경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3월중에 진행 될 예정인 OT는 학교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 통일된 기획안은 추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 괜찮으신지?

간호.비: 네 좋다. 근데 그 통일된 기획안도 어느 단위에서 논의되기 이전에 짜서 우리는 언제 미리 할거다 라고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단위에서 준비할 때 준비하기 전에 언지를 해주는 식으로 약속하면 어떨까 싶다.

총: 좋다. 그리고 통일된 기획안 그리고 새터 관련된 추경은 차후 또 예산팀과 한 번 더 미팅이 필요 할 것이라고 예산안과 한 번 더 미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 4. 기타 안건

총: 혹시 기타안건 있으신지?

사범.정: 회의 끝나가는데 정말 죄송한데 뭐 여쭙볼게 있어서 일단 죄송하다. 각 단과대별로 혹시 각 과에서 3월에 보궐선거 진행하시는 단과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온라인으로 다들 선거 진행하실텐데 어떤 방식을 진행하시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되는지?

총: 간호대 3월 보궐선거 하신다. 좀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간호.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뭐 어떤 방법, 구체적으로 뭘 여쭙보시는 건지?

총: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투표방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간호.비: 우선적으로 저희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준비를 하다가 후보자 미등록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어서 보궐선거를 진행하는데 작년에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이었어서 준비했던 것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교지팀이랑 협의된 내용들이 있어서 해당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재논의한 다음에 할 예정이다. 아직 일정은 안 짚고 짜고 있고 단운위 안에서 룰미팅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환경에 맞춰서 후보자들이 온라인 환경 이용해서 선거유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룰미팅 짜고 있다. 그다음에 뭐 채널 같은 경우에 저희 단위는 이제 이클래스를 좀 이용할까 생각 중에 있다. 그리고 투표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위도 이제 단과대 선거 말고도 반별로도 보궐선거가 좀 있어서 아예 오투웹스 이용해볼까 돈도 있어서 고민 중에 있고 관련해서 그



냥 교비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려중에는 있으나 단가가 높아질 것 같으면 다른 방법 하려고 예상하고 있다. 기획 중에 있다.

총: 이클래스 이용한 투표는 제가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사범.정: 네 답변 정말 감사하다.

총: 아까 사회과학대학 회장님 말씀하고 싶은 것 있으신 거 아닌지?

사과.정: 오투웹스 이야기 해드리려고 했다.

총: 설명해달라.

사과.정: 네?

총: 아 도움이 되실까봐.

사과.정: 작년에 저희 사과대 단운위 단위들 중에서도 오투웹스로 작년에 3월부터 비대면으로 학년대표 선거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었어서 오투웹스 라는 인터넷 투표업체 사용해서 진행을 했었고 대부분의 단과대나 이번 총학생회 선거나 오투웹스라는 업체를 사용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이버에 오투웹스 치시고 거기 들어가면 선거인 명부에 있는 인원으로 견적서 같은 것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다.

사범.정: 죄송한데 오투웹스인지?

간호.비: 사범대 회장님 혹시 자료공유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끝나고 연락주시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범.정: 네. 카톡에 정확한 단어 좀 올려주시기 바란다.

간호.비: 지금 사과대 회장님께서 좀 채팅방에 올려 주신 것 같다.

사범.정: 그럼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간호.비: 저도 기타 안건으로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신입생 웰컴기프트 선물세트 관련해서 총장단 측에서 할 예정이 있는지 여쭙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총: 네 웰컴기프트 진행 예정 중에 있고 이제 기프트백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저희 총학생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

간호.비: 그렇다면 혹시 단과대학별로 발송이 되는 거라면 추가를 따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총: 아니다. 기프트백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은 다 일괄적으로 배송된다.

간호.비: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그럼 아예

총: 그때는 단과대별 추천도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과대별로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도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배송이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된다.

간호.비: 네 감사하다.

통공.정: 공대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

총: 네

통공.정: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번 중운위에서 단대별로 등록금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 회의해서 다시 얘기하기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당 내용이 논의안건에 없어서...

총: 이걸 제가 기타 안건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7.8억에 대한 예산은 차지하고 7.8억에 대한 것은 추가 가용 예산 확보 자료라든지 따로 별개로 논의를 하고 저희 서울캠퍼스 중운위의 입장을 한번 수립을 해야 할 것 같다. 보편적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선별적 지급을 할 것인지.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편적 지급이라 함은 모든 재학생 분들에게 동일한 비율을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고 선별적 지급이라 함은 소득분위라든지 실제 타산 과정에 우선적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선별적 지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각 단과대별로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선별적 지급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의견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부총: 저희가 이걸 비용문제 우선에서 논의를 하는 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성캠퍼스와 의견 차이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앞으로도 요구하겠지만 이 부분은 안성캠퍼스와 협의해야하는 사안이라 우선적으로 의견을 부탁드린 것이다.

인문.정: 궁금한 것이 또 있는데 혹시 7.8억 이후에 예산 추가확보 요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답변이 오시는 건지?

총: 지난주 금요일에 추가 가용예산 관련 자료라든지 6억에 대한 출처 자료 요청 공문 보냈고 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인문.정: 그러면 혹시 선별적 지급, 보편적 지급도 일단은 정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안성캠이랑 충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그 전에 7.8억에 대해서 수용을 할지 안할지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중운위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수립해야하지 않나.

총: 7.8억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가용 예산 확보를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한다. 그래서 해당 자료가 회신이 오면 그때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절차상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수용할건지 말 것 인지는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신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사과.부: 혹시 사과대 질의 있는데 안성캠퍼스하고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지?

총: 우선 저희 서울캠퍼스가 주장하는 보편적 지급은 우선 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그 경위와 배경을 고려했을 때에는 모두가 다 피해를 받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보편적 지급을 주장한 것인데 저도 안성캠이 왜 선별적 지급을 주장을 했는지 그 의중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그 배경은 저희와 약간 상이한 것 같다.

부총: 원래 사전에 보편적 지급에 대한 서울캠퍼스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합의를 하고 이제 회의를 들어가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의견이 갈리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정리하고 안성캠퍼스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안성캠퍼스에서 하나의 논거를 제시를 했다. 제시한 것은 이제 안성캠퍼스의 경우 실기 위주의 학문 단위가 많고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외에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그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학생 개인적 재정적 부담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선별적 지급을 얘기하신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길게는 얘기를 안했다마는 서울캠 학생 측은 그 학생들의 어려움은 1인 가구로써의 어려움인데 선별적 지급을 했을 때에는 가계소득과 실직 파산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과 학생 1인의 어려움을 등치시켜서 볼 수 없고 그것이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했고 이후에 이에 대해서 더 의견공유를 한 바는 없었고 당시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급하게 합의를 하고 계속 속 개했다.

사과.부: 네 답변 감사하다.

간호.비: 그러면 안성 측하고 논의를 하고 들어간 것인지?

총: 안성이랑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일단 중운위의 입장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안성캠과의 논의가 보류중에 있다.

인문.정: 그럼 그 입장을 수립하는 중운위는 언제 하는 건지?

총: 현재 지금 저희가 보편적 지급을 할 것인지 선별적 지급을 할 것인지 하나의 안만 통합시키면

간호.비: 그럼 지금 단운위에서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되는지?

총: 네

간호.비: 저희 간호대학 먼저 말씀드리겠다. 우선적으로 7.8억중에 1.8억이 기금으로 들어왔는데 해당 기금이 단순히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기금인지 아니면 학교 측에 특별장학금의 형태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있는 이런 기금인지 그 기부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기부 목적을 자세히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 단순히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라면 합쳐서 7.8억을 보편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기금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라면 6억에 대해서만 보편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다가 단운위의 의견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주장하는 데에 대한 논거로는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등록금 환불이고 등록금 환불이라는 등록금 질과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의 낸 등록금의 일부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이다. 그래서 저희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 지급이나 아니면 보편적 지급이나 라고 여쭙보신다면 보편적 지급으로 주장하겠다.

총: 네 감사하다.

인문.정: 인문대학 의견 말씀드려도 되는지?

총: 네

인문.정: 인문대학도 동일하게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유는 이미 간호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 저희가 등록금 환불을 이 논의 자체를 이끌어내는 목적 자체가 교육권 측면이지 가계와 생계 곤란의 측면 때문에 이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다. 교육권 측면에서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 문제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단운위내에서도 존재했다.

총: 네 감사하다.

경경.정: 경경대도 보편적 입장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사유 같은 경우에는 간호대, 인문대에서 충분히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사범.정: 사범대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사범대학 입장도 보편적 지급으로 의견이 다 모여졌고 이유 또한 앞서 회장님들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아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사과.정: 사과대의 경우에도 보편적 지급으로 의견 모아졌고 이유는 앞서서 다른 단위에서 설명해주신 바와 같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저희 저번 임시회의에서 저희를 비롯한 몇 단위가 이해한 바로는 7.8억을 수용하지 않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중운위 차원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지금 이미 협의체를 통해서 7.8억 이상의 가용 예산을 요청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용 예산을 요청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용 예산에 대해서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과 별개로 중운위 차원에서 7.8억을 공론화하고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행동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 저희 단운위 의견으로는 7.8억에 대해서 완전한 불수용의 입장이라서 중운위 차원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공.정: 공대 의견 말씀드리겠다. 통일공대도 보편적인 지급으로 주장하기로 했고 해당하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문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유랑 똑같고 두 번째는 이미 가계 소득분위로 국가 장학금과 중앙사랑장학금이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왜 이것까지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가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 이유로는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선별적 이유의 기준안을 모든 학우들이 과연 동등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공대에서 나온 추가 의견으로는 학교에서 재원이 7.8억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을 때 중운위에서 판단한 결과 이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학교 측 회계 담당자의 사과문을 요청 하는 의견도 있었다. 근데 1학기, 2학기가 환불에 해야 하는 재원이 상이한 걸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사과문을 요청하셨다.

부총: 아까 사과대에서 공론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차후에 진행하게 되는 두 가지의 결과 보고가 일단 저희가 올라가는 게시물에 저희의 입장을 표명하기 보다는 상황 설명 위주로 게시물의 내용이 편성 될 것이나 그 게시물을 올리는 목적은 공론화의 목적도 일부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인문.정: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정보공개는 일단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공론화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도 아까 어떤 단위에서 말씀해주셨지만 저희도 7.8억에 대해서 만약에 학교 측에서 완벽하게 재정부족의 이유를 설명 한다 하더라도 학우 분들이 그것을 100% 받아들이실지는 사실은 좀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중운위 차원에서 뭔가 명백하게 학교 측을 대상으로 한 행동

이나 액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린다.

총: 우선 저희도 6억에 대한 출처도 모르고 추가 가용 예산도 모르고 저희 중운위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 검토 후에 입장 수립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부총: 조금 더 적극적인 중운위 입장 표명 같은 경우는 추후 논의되는 양상이나 그 과정에 따라서 방식이나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론화라는 것이 단순히 학생들의 여론을 모으고 동일한 의견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총학생회나 중운위 차원에서 진행할 때 학생들이 공론화 의도와는 다르게 차후에 대해서 중운위가 현재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 훨씬 긍정적인 사건을 가지게 되신다거나 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중운위의 여론관리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구상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아까 정보 보고에 공론화의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 일단 학생들께서 지금 중운위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그에 대한 의견을 학생 측에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한 양상을 모두 지켜본 후에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을까 생각한다.

사과.정: 어떤 의견이신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단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등록금 환불에 가용한 예산이 38억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규모가 너무나도 축소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학우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든다.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거는 우선 자료요청을 했으니 자료를 받고나서 가용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운위 위원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대응책을 논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가용예산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가용예산이 없으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중운위 저희가 활동을 했을 때 한 것이 두 차례 진행된 등록금 환불 협의체에 참여한 것과 그리고 카드뉴스 발행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등록금 환불을 학교로부터 요구하는 최선의 방법인지가 약간 의문이라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려는거는 자료 확보와 자료 검토와 별개로 어떤 행동이 필요하더라는 의견인 것이다.

부총: 말씀하신 것이 학교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나 예산이 아니더라도 등록금 환불이나 학사 운영에 대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태도라든지, 그동안의 정책적인 오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지적을 하고 갈 수 있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저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학교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이고 그것이 차후에 입장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일단은 절차적으로는 자료를 학교 측에 요구하고 저희가 받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저희가 정보 보고 드리면 그 이후에 학생들의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여론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학생들의 여론과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대책을 어떻게 논의해야할지는 그때 고민을 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한지 않은가 말씀을 드린다.

인문.정: 그러면 그 자료는 언제쯤 오는지?

총: 시기를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많고 좀 신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다. 내일 또한 예산팀에 전화해서 독촉전화 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지급 방식은 보편적 지급으로 중운위 입장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은 안성캠 대표자들과 논의를 해서 통일된 요구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가의견 있으신지? 그러면 자료 검토 후에 중운위 입장 대책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 하시는지?

간호.비: 간호대학 동의한다.

사범.정: 사범대학 동의한다.

예대.정: 예술대학 동의한다.

(이하 동의의견)

총: 대부분의 대표자분들이 동의하시는걸로 하고 기타의견 없으시면 9차 정기회의

부총: 개인적인 사건으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저희 총학생회에서 강의계획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총학생회 특성상 교양강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교양강의 강의계획서에 대한 피드백은 많이 나오지 않았고 담당 국장님의 말을 인용하면 전공강의 강의계획서의 피드백이 훨씬 많을 것이라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다. 그래서 만약 가능하신 단위가 있다면 수강신청이 진행되기 전까지 단위별로 전공강의 강의계획서가 제대로 내용이 기입되어있는지 교강사가 모두 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 의견을 전해드린다.

경경.정: 경경대 지금 해당 내용 진행하고 있다.

간호.비: 간호대학 진행했다.

총: 네 알겠다. 추가의견 없으시면 중운위 9차 회의 마치겠다. 고생 많으셨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